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2-직권-00003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학교 3학년 ○○○ 외 2명

피조사자 ◇◇◇(△△△△학교 교사, ○○ 과목 담당)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다.

나. 교육청은 교사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교육을 계획하여 학교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가. 교사의 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 감수성에 기인하여,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협의하여 특별인권교육을 하고,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실시 배경

○ 2022. 4. 1.(금) △△△△학교에서 피조사자가 3학년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사안 보고하였다.

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하였고, 피해 학생 외에 이름을 모르는 학생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조사자가 이처럼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피해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성적 자기 결정권)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 사건 요지

- 1)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와 성기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행위를 하고 “네 아빠나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아, 너는 내 자식보다 나이가 어린데 뭐 어때냐?”라는 발언을 하였다.
- 2) 피조사자가 이름을 모르는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3. 직권조사 방법

가. 조사방법: 관련자 면담 조사 등

나. 조사 경과

○ 2022. 4. 1.(금) 학교, 학교폭력 사안 보고

학교 관리자 통화하여 사안 처리 절차 컨설팅

○ 2022. 4. 4.(월) 학교 방문하여 사안 처리 절차 컨설팅, 관련자 면담 조사(가해 혐의자, 피해 학생, 목격 학생, 최초 인지 교사)

- 2022. 4. 6.(수) 기초조사 보고
- 2022. 4. 7.(수) 직권조사 통보
- 2022. 4. 15.(금) 피조사자 면담(문답) 조사
- 2022. 4. 18.(금) 관련자 면담 조사
- 2022. 4. 21.(목) 학교 관리자(교감) 전화 면담 조사

II.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붙임 1]과 같다.

2. 당사자와 참고인 주장

가. 피해 학생(○○○, 3학년)의 주장

2022. 3. 30.(수) 오후, 몸이 좋지 않아 친구 ○○○와 보건실에 있었다. 보건실에는 보건 선생님이 없었고 친구와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피조사자가 보건실로 들어와 “보건 선생님 어디 가셨냐?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받으러 왔다.”라고 하였다.

나는 긴 소파에 앉아있었고, 친구가 맞은 편 작은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피조사자가 내 옆에 앉았다.

피조사자가 마사지해 준다고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성기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내가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게 맞아요?”라고 말하고,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친구 옆으로 갔는데, 피조사자가 “네 아빠나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

다. 내 자식보다 네가 더 나이가 어린데 뭐 어떠냐?”라고 말을 하고, 보건실에서 나갔다.

나. 피조사자의 주장

1) 1차 면담 조사

사안이 발생한 날이 3월 마지막 주인 거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소화가 안 돼서 보건실에 소화제를 받으러 갔는데, 보건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학생이 혼자 있었다. 학생을 보니 아파 보이지 않는데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학생을 수업에 들여보낼 생각으로 학생에게 말을 걸어, 몇 학년이고,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다가 성기를 만진 것 같다.

보건실에서 있었던 상황이 한 번 더 있었다. 수업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댄스실에 있던 학생에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3학년 학생이었던 것 같다.

내 기억으로는 보건실이나 댄스실에서 학생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화를 내며 불편함을 표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과했을 텐데, 함께 웃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학생이 기분 나쁘거나 불쾌했으리라 생각하진 못했다.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이랑 헤드록을 걸기도 하며 신체적 접촉을 자주 하였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이번 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다.

2) 2차 문답 조사

일시 미상경(3월 21일 주간, 시간은 12시경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일

시는 기억나지 않음) 보건실에 약을 받으러 갔는데, 보건교사는 없었고, 학생 한 명만 조용히 앉아있어서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 앞에서(학생의 앞인지, 옆인지 기억나지 않음) 의도적으로 성기 부위에 손을 댔다.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학생에게 다가가 의도적으로 성기에 손을 댔다. 이때 학생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어떤 손으로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평소 마사지를 하지 않으므로 학생에게 마사지한다고 허벅지를 만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실에 있던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학생의 이름과 고향을 물어봤고, 내 고향도 이야기한 후 5분 정도 있다가 보건실에서 나왔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학생에게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네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말을 한 것 같다.

보건실과 댄스실에 있었던 일이 특별히 인상에 남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다른 일을 기억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성추행이라고 미쳐 생각하지 않아 그런 행동을 했고, 그냥 장난 행위이고, 노골적으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성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3월 초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1학년 학생을 찾으러 댄스실에 갔는데, 찾던 학생이 책상 위에 누워있었다. 그 학생에게 가던 중 책상 옆 빈백 소파에 앉아있던 학생의 성기 근처를 툭 치고 지나갔는데 당시 학생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학생의 이름이나 학년은 기억나지 않는다.(문답 이

후 피조사자에게 댄스실로 찾아갔던 1학년 학생의 이름을 물었고, 피조사자가 1학년 □□□이라고 답변하여 담당 조사관이 □□□ 학생을 면담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함)

※ 상세내용은 [붙임 2]와 같음.

다. 목격 학생(○○○, 3학년)의 주장

보건실에서 피해 학생과 쉬고 있었는데, 피조사자가 소화제 얻으러 왔다고 들어오셨다. 나는 피해 학생과 소파에 마주 보고 앉아있었는데,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 옆자리로 앉으시더니 피해 학생을 마사지해 준다면 허벅지 쪽으로 손이 갔고, 이후 성기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피해 학생이 놀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고, 나에게 “이거 맞냐?”라는 말을 되풀이하더니 내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

피조사자가 “내가 너희 아빠나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다. 내 아들이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다.”와 같은 말을 했던 것 같다.

당시 나는 피해 학생이 당황하니까 처음에는 웃었는데,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 관련 학생(□□□, 1학년)의 주장

3월에는 수업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북카페, 댄스실, 별마당에 있었다. 가끔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 친구들이 찾으러 왔다.

피조사자가 북카페로 딱 한 번 나를 찾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 피조사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해서 도망간 적이 있다.

피조사자가 북카페에 찾으러 온 것 외에 다른 곳으로 찾으러 온 적은 없고, 내 코를 잡은 적도 없다.

마. 최초 사안 인지한 교사(目目目, 체육 담당)의 주장

2022. 3. 31.(목) 5~7교시 동아리 활동 시간이었다. 5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학생과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학생이 보건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피해 학생 목소리가 상당히 기분 나쁜 말투였고, 피해 학생이 “선생님이 학생을 만져도 되냐?”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여 알게 되었다.

당일, 보고하지 못했고, 다음날 09:20경 교감 선생님에게 보고드렸다.

바. 학교 관리자(교감 ㅁㅁㅁㅁ)의 주장

2022. 4. 1.(금) 아침, 체육 교사로부터 사안을 보고받고 매뉴얼에 따라 피해 학생을 상담하여 사안 내용을 확인한 후 목격 학생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안 내용을 정리하여 11:00경 피조사자를 교장실로 불러 사안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조사자가 바로 인정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후 완주교육청과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 전담 경찰과 완주군청 아동학대 전담팀에 신고하였다.

피조사자에게 “학생과 성 문제가 있었느냐? 학생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피조사자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하면서 “그런데 어디에서 있었는지, 학생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혹시 댄스실이냐?”라고 물었다. 그래서 “댄스실이 아니고 보건실이다.”라고 말해주었고, 접수된 사안 내용을 안내하였다.

피조사자가 매우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긴장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떨려서 장소를 헛갈린다고 생각했다. 피조사자가 학교에 발령받아 온 지 한 달 된 상태라서 다른 피해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므로 댄스실이 아니고 보건실이라고 장소를 정정해주고, 사안 내용을 안내하였다.

피조사자가 사안 내용을 바로 인정했기 때문에 댄스실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3.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2022. 3. 30.(수)경 보건실에서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의 성기를 만졌다.

2) 위 1) 항의 행위 이후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에게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네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말하였다.

3) 2022. 3.경 피조사자가 댄스실에서 특정되지 않은 학생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는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한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 결정권(또는 자기 운명 결정권)’은 외부(국가권력 등)로부터 간섭 없이 개인의 생활 및 운명 등(사적 사항)과 관련하여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 결정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간섭 또는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는 분명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말이나 행동을 강요하여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주는 경우, 타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결정권’에 포함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¹⁾에 따른 “성폭력”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등에 따른 “성희롱”²⁾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1) 형사법상 성(性)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이 18세 미만의 아동들이므로, 「아동복지법」 제 17조(금지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관련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성범죄)과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는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의 학생일 수 있다는 점, 피해는 일상적이며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배우는 과정의 학생으로 성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 등에서 그 피해의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은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피해 등에 대한 상황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조사자의 행동과 관련해서 성적 의도가 있었느냐는 피조사자 내심의 결정이므로 아무도 알 수는 없어, 위 인정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가)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위 인정 사실 1) 항과 같이 피조사자는 2022. 3. 30.(수), 보건실에서 피해 학생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피해 학생의 성기에 손을 댔지만 주무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피조사자가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성기를 양손으로 주물렀다.”라는 피해 학생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 “기억나지 않는다”와 관련한 피조사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조사자는 사안이 발생한 일자, 피해 학생의 이름과 얼굴, 보건실에서 피조사자 자신의 행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스쳐 지나가는 일로 생각했고, 정말 별일 아닌 걸로 생각했고’, ‘평상시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조사자가 학생의 성기를 습관이나 버릇처럼 만지기 때문에 피조사자조차 자신의 행위를 특별히 의식하지 못하거나,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스쳐 지나가는 일’ 정도로 여길 만큼 인권 의

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피조사자의 주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떠나서, 교육 활동 중 피조사자의 “기억나지 않는” 행위 등으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피조사자는 보건실에서 피해 학생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표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 학생의 반응을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조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스쳐 지나가는 일로 생각했고, 정말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피해 학생의 반응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행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 학생의 반응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어, 피조사자가 자신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피조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일관되지도 않아 피조사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반면, 피해 학생은 피조사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학생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던 목격 학생의 진술 또한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일치한다. 아울러, 피해 학생이 사안 발생 다음 날(3. 31.) 오후, 동아리 활동 시간에 동아리 활동 담당 교사와 동아리 활동 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목격하지 않았으면 표현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에게 거짓 진술 등으로 피조사자를 음해할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으며,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와 학생이 다수인 점 등으로 보아 피해 학생의 진술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따

라서, 피조사자가 2022. 3. 30. 오후, 보건실에서 피해 학생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 학생의 성기를 주물렀다고 판단한다.

피조사자는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의 성기를 만졌을 때, 피해 학생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 학생은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 옆에 앉아 피해 학생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양손으로 성기를 주무르자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게 맞아요?”라고 말하고,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목격 학생 옆으로 갔다고 주장하였다. 목격 학생 또한, “피해 학생이 놀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고, 나에게 ‘이거 맞냐?’라는 말을 되풀이하더니 내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라고 주장하였다.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주장으로 보아, 피조사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행동으로, 피조사자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³⁾하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게 맞아요?”라고 불쾌감 또한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판단한다.

피해 학생은 피조사자의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조사자가 “네 아빠나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내 자식보다 네가 더 나이가 어린데 뭐 어떠냐?”라고 말을 하고, 보건실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목격 학생도 피조사자가 “내가 너희 아빠나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내 아들이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도 위 인정 사실 2) 항과 같이 피해 학생에게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네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

3)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피조사자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 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학생의 허벅지와 성기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피조사자는 자신의 행위가 “친근감의 표시” 또는 “장난”이며, “의도적으로 학생의 성기에 손을 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조사자의 주장대로 “친근감의 표시” 또는 “장난”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의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알고 있는 사이여야 하며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친근감의 표시 또는 장난은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친근감의 표시 또는 장난은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피조사자는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그냥 장난 행위라고 여겼고 노골적으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조사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하며, 장난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의도 없이 이루어지려면, 피조사자와 피해 학생이 같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로의 행동이 겹쳐 피해 학생의 성기를 피조사자가 손으로 스치거나 만져지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가만히 앉아있는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다른 신체 부위도 아닌 허벅지와 성기를 주무르는 행위는 의도 없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장난의 의도는 있었으나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피조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와 성기를 양손으로 주무른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며, 피조사자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와 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⁴⁾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목격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피조사자는 2022. 3. 30. 보건실에 피해 학생 혼자 있었고, 다른 학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학생과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동아리 활동 담당 교사 ㉸㉸㉸, 교감 ㉸㉸㉸의 진술과 학교가 제출한 ‘(학교폭력, 아동학대) 사안 보고’, 목격 학생이 2022. 4. 1. 작성한 ‘학생 확인서’ 등의 자료에 따를 때, 당시 보건실에는 피해 학생과 다른 학생이 한 명 더 있었다. 피해 학생과 같이 있었던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인 3학년 2반 남학생이며, 피조사자가 보건실을 방문했을 때, 피해 학생과 낮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앉아있었다.

- 목격 학생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살펴보면, 피조사자가 같은 반 친구인 피해 학생의 성기를 공공연하게 주무르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고, 이를 지켜본 목격 학생 또한 불쾌감을 느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목격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각적 성희롱(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을 하였고, 목격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

4)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다고 판단한다.

다) 특정되지 않은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위 인정 사실 3) 항을 살펴보면, 학교가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 사안 발생 이틀 후(2022. 4. 1.), 학교 관리자인 교감이 피조사자에게 학생과의 성 문제(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피조사자는 “그런 적이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있었는지, 학생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혹시 댄스실이냐?”라고 반문하였고, 1차 면담 조사에서도 “댄스실”을 언급하며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댄스실에 있던 학생에게 보건실에서와 같이 하였고, 그 학생이 기억나지 않지만 3학년 학생이었던 것 같다.”라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차 문답 조사에서 피조사자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1학년 (□□□)학생을 찾기 위해 댄스실에 갔을 때 (□□□)학생은 책상 위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고, 그 책상 옆 빈백에 앉아있던 학생 앞을 지나면서 성기 근처를 톡 쳤는데 그 학생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다. 자는 척하던 1학년 학생의 코를 잡아 깨우고 수업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안 가려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수업에 들어오라고 하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 학생은 피조사자가 댄스실에 자기를 찾으러 온 적도 없고, 피조사자에게 코를 잡혔던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건실에서 발생한 사안 관련하여 피조사자는 보건실에서 자신의 행위, 피해 학생의 이름과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면 서도, 피조사자가 보건실에 간 이유와 피해 학생의 반응은 기억나는 것으

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방법은 댄스실에서 발생한 사안을 진술할 때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조사자가 댄스실을 간 이유, 당시 댄스실 빈백의 위치, 이름을 모르는 피해 학생의 반응은 기억하나, 자신의 행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 학생이 피조사자의 주장과 달리 피조사자가 댄스실로 자신을 찾으러 온 적이 없고, 코를 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조사자가 □□□ 학생을 찾으러 간 장소를 혼동할 수도 있으나 댄스실을 방문한 이유(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을 찾으러 갔다)를 강조하기 위해 □□□ 학생을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보건실이나 댄스실을 방문한 이유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며 보건실과 댄스실에서 발생한 사안은 의도된 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학교 관리자인 교감이 진술하였듯이 피조사자는 (보건실에서 발생한) 학생과의 성 문제를 묻자, “혹시 댄스실이냐?”라고 반문한 사실이 있고, 1차와 2차 면담 조사에서도 댄스실을 자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적어도 피조사자는 댄스실에서 발생한 사안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조사의 한계로 댄스실에서 발생한 사안 관련하여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없고, 목격 학생도 없어 현재로서는 피조사자의 행위를 피조사자의 진술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피조사자는 “댄스실에서 빈백 소파에 앉아있는 학생 앞을 지나가다 학생의 성기 근처를 툭 쳤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건실에서 발생한 사안 관련하여 살펴보았듯이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의 성기를 만지거나, 툭 치는 행위는 의도 없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가 댄스실에서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

위를 하여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2) 소결

피조사자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와 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보건실에서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고, 댄스 실에서도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이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동성 교사와 학생의 신체접촉을 친근감의 표시로 이해하는 등의 그릇된 성인지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특히,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그릇된 성인지 문화를 인권 우호적으로 바뀌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 결론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성적 자기 결정권)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피조사자를 포함하여 교사들의 학생 인권에 관한 감수성과 이성의 관계 외에도 동성의 관계에서 존중되어야 할 성적 자기 결정권 등 학생의 성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Ⅲ. 결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2. 5. 12.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조 기 영 (인)

[붙임 1]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 11. 생략

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

피조사자의 주장

<1차 면담 조사>

- 사안이 발생한 날이 3월 마지막 주인 거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소화가 안 돼서 보건실에 소화제를 받으러 갔습니다. 보건실에는 보건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학생이 혼자 있었습니다. 학생을 보니 아파 보이지 않는데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학생을 수업에 들여보낼 생각으로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몇 학년이고,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다가 성기를 만진 것 같습니다.
-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말을 듣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일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고, 제 자식보다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행동이 친해지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 보건실에서 있었던 상황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댄스실에 있던 학생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3학년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제 기억으로는 보건실이나 댄스실에서 학생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화를 내며 불편함을 표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과했을 텐데, 함께 웃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학생이 기분 나쁘거나 불쾌했으리라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 고산고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이랑 헤드록을 걸기도 하

며 신체적 접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2차 문답 조사>

- 사안이 발생한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부른 날이 4월 1일인 걸로 보아 그 전 주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나 오전 일찍도 아니었고 낮 12시 무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 제가 몸이 불편해서 보건실에 약을 받으러 갔는데, 보건교사는 없고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조용히 앉아있어서 다가가서 성기 부위를 만진 거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학생을 기억하려고 학생의 고향을 물어봤고, 제 고향도 이야기하고 별 느낌 없이 보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잇고 지내다가 며칠 뒤 교감이 불러서 “보건실에서 성추행이 있었냐?”라고 물어서 뜨끔했는데, 그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교감 선생님 말씀 듣고 ‘아, 이게 추행이구나’ 했습니다.
- 그날 상황으로 보아 학생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그 일이 사건이 될 거로 예측하지 못해서 특별히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금방 이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타입이라 굉장히 힘들게 학생 이름을 외우는 편인데, 아무튼 스쳐 지나가는 일로 생각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그 상황을 기억하였지만, 그전까지는 정말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해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 제 기억으로는 보건실에 학생이 한 명 있었고, 그 학생이 소파에 혼자

앉아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학생이 있었던 것은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 제가 보건실에서 학생의 이름을 묻기는 했지만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후, 학생의 이름은 조사과정에서 여러 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학생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정확하게 얼굴을 기억하는 학생은 두 명인데, 한 명은 제가 여러 번 학생의 이름을 물어보아서 알고 있고 한 학생은 수업에 안 들어와 찾아다녀서 기억합니다. 제가 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정읍고등학교에서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 학생들과 친숙해지기 위해 자주 신체접촉을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어깨를 툭 치거나 헤드록을 하거나 장난스럽게 학생과 신체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장난스럽게 다가오면 저도 장난으로 가볍게 신체를 접촉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학생에게 먼저 활달하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학생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 저는 제가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그리고 한 손으로 만졌는지 두 손으로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마사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평소 제가 학생을 마사지한 적은 없으나 학생이 제 어깨를 마사지한 적은 있습니다.
-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의 성기에 의도적으로 손을 댔는데, 학생의 리액션이 없어 만져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손으로 만졌는지 두 손으로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학생 앞에서 만진 걸로 기억합니다.

- 제가 학생의 성기를 주무른 게 아닙니다. 손을 대기는 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제 의도 상 주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날 제가 학생의 옆에 있었는지 앞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그 학생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 저는 학생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과 보건실에서 약 5분 정도 같이 있었고, 제가 이름과 고향을 물어본 것은 기억나지만 그 외 학생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 제가 한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첫 수업 시간에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고향이 뭐고 이름은 뭐냐며 물어보면서 '나는 아빠 같은 마음으로 대할 거다. 내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 수시로 물어볼 거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보건실에서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과 함께 '내가 네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같습니다.
- 제가 1학년 학생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아는 학생이 수업에 안 들어와서 수소문하니 댄스실에 있다고 해서 갔더니 몇몇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략 4~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찾는 학생은 책상 위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고 그 책상 옆에 있던 폭신한 빈백 위에 앉아있던 학생 앞을 지나가면서 학생의 신체를 만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성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나 얼굴,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
- 댄스실에 들어가자마자 출입문 가까이에 타원형 모양의 폭신한 빈백 소

파가 있었고 그 학생이 앉아있었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학생의 성기 근처를 툭 치고 간 걸로 기억합니다.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자는 척하는 학생의 코를 잡아 깨우고 수업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안 가려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수업 들어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 지금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 제가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안 했을 텐데, 성추행이라고 미쳐 생각하지 않아 그런 행동을 했고, 저는 그냥 장난 행위라고 여겨서 제가 노골적으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성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 댄스실에서도 저는 제 의도가 그저 장난이라고 여겨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학생도 제가 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여겼고, 제가 강압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학생이 문제를 제기할 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으면 당시에 저에게 말했을 텐데, 학생이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아서 이처럼 조사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건실과 댄스실에서 있었던 일이 특별히 인상에 남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학생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고향이 어딘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다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